



송원식 선생

(평안도당 위촉장)

송원식 선생은 1909년에 12월 29일에 원동면
 강울진구역 배냇뜨기촌 빈농민위 가정에서 태어
 났다. 선생이 13세가 되던 해에 양부모가 일시에 세상을
 떠남으로 선생은 남의 집으로 돌아 단야로 노동을 하게 되었다.
 사남으로 태어난 송선생은 자기 형들의 방조를 받아 고종
 1 / 에서 공부하였으며 소년단 사업을 걸쳐 공철회 사업에

·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동선생은 원래 아주 참하고 인내심이 있는 성품이었으며 그에게 총평한 이남자로써 남보다 더듬하게 공부로 잘하였다. 때문에 그는 벌써 17세 되는 고종학생으로써 고종학교 공청회 책임비서로 선거되어 활하게 되었으며 또 군당 위원회의 보증으로 농촌도서관 관장으로 일하게 되어 경제적 면에서도 일간의 방조를 받게 되었다.

동선생은 1927년에, 18세의 청년으로 공산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공산당 규약의 하한선 20세 미만의 청년은 특수한 경우에 공산당에 입당하게 되었는바 3년 이상 당 경력을 가진 공산당원 3명의 보증인이 요구되는바 그중 공산당원 1명 대신 꼭 공청회 위원회 보증이 있어야 3년간 기한으로 후보공산당원으로 입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선생은 특별경우 중 특별경우로 군공산당위원장의 보증을 받아 후보당 년한이 없이 공청원으로 붙어 직접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그후 동선생은 가장 충실한 공산당원으로, 가장 믿음직한 당의 선봉대원으로, 라기 생애의 빛이 막 시작까지, 56년 동안 당의 노선을 직했다. 1931년에 동선생은 아주 전망이 밝은 공산당원으로 하바롭스크시 원동변강 공산대학에 파견되어 그 대학을 1933년에 졸업하고 울진군당 위원회 당 지도원으로 또 상급 지도원으로 1937년 8월까지 일하시었다.

1937년 8월에는 원릉에 살고 있던 전체 한인들과 함께 소하진의 강령이주 정책에 의하여 우리 처럼 화북지역에 살려 주는 아시아로 보내게 되었으나, 러시아 중 동선생 이외 많은 한인들은 장길부사(코지프스) 병에 걸려 가사프스한 부르노에 시에서 하차하여 약 일주일간 쉬는 동안 다음 배편을 타고 상륙하였으나 살아남은 사람은 라기 협동조합의 회원들이 살고 있던 하슈켄호주 공청회 규약 명세서 1명씩 끌노크에 따라 나오게 되었다. 동선생은 끌노크에 도착하자 끌노크

회원들이 두터운 신임을 받아 곧바로 관리위원장으로 선거되
 었다. 강제로 실행된 의주민들의 농업협동조합 위원장 일을 하기로
 여간이 힘든일이 아니었다. 화물차에 싣려온 사람들에겐 어쨌
 런 농산기구나 밭이끼의 뉘설에 당진하여 먹고살 양식도 없었던
 둘째 문제를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협동조합을 조직한 농산지역
 이라고 땅을 획정하여 공들은 개간하지 아니한 수백년동안 묵어
 대대 손으로 내댈은 갈밭 황무지였다. 반초를 막을 짚과 같은
 벼에 둘러싸고 윗예영예고 같은 벼에 두둑하게 자리를 만들고
 벼에다 가래를 걸고 같은 때면서 음식을 쪄어 먹으면서 겨우
 동안 살아 나가는 뉘설이 되자 질환에 걸려 약을 시작하였던이
 특히는 어린아이들은 기록 백기음과, 풍아시아 말라리아 병에
 걸려 몸량 다 죽어 갔으며 원기 약한 노인들도 거이나 다 죽어
 갔다. 이러한 고초난관에 병착한 강제어주민들은 어린
 아이나 늙은 부모들을 장사하고서도 그 어흔날 눈물을 흘리면서
 농장에 나가서 그대로 모진 목숨 살아볼라 땅을 두지게 되
 었다. 새로 위원장으로 선거된 송선생은 상부 각 기관들에
 돌아 다니며 식량을 대부하여 준다, 공금을 대부하여 준다 또
 돌아오는 벼에 월동준비를 위하여 돈을 대부하여 전축제금을 사느
 린다, 밤을 낮으로 대신하면서 생사를 내걸고, 애용힘을 다
 하여 영영적으로 일하사였다. 이렇게 일하사 결과 수천년
 묵은 갈밭을, 갈을 베어내고 불농한 벼가물에 농사가 잘되어 협동
 조합 회원들은 매 노력일당 벼 10 길로 야상식 벌여, 일년 농사
 농화를 한 결과 매 노력일당 중으로 벼 3 톤 - 4 톤씩 벌지되어,
 부활적 가정들에서 노력자가 3 - 4명이 있는 집들에서도 가을
 농화에 벼 10 톤, 쌀 돈으로도 수천원씩 분배 받게 되었다
 강제 어주민들은 생소한 타향에와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
 으나 앞으로 살아갈 길은 열리었다. 또 돈을 꾸어서 집 짓기를

사람들은

4,
시작한 사택 건축, 공간, 다수간 행정 사무실 및 문화회관
까지 잘 짓어 갈발 항우지들에는 석양식 새 부락들이 일어난
서게 되어 사람들은 더 부끄러워 일하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자라났다

일년 농사를 결산하고 보니 협동조합이 부락이 된 것은 농민 원장은
확연하게 알게 되었다. 배변 살이고, 쌀이면 돈이란 것을 알게 된
협동조합원들은 아무런 일장타라는 선전이 없어도, 자원적으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여 조력할 자
벌기에 몰두하였다. 농민 원장은 일년 정례 연도 결산에 의하여
조합에 차려진 리원으로 국가의 빚을 다 갚고도 농민에게 가장 필요
한 트랙터 10 대, 화물차 5 대, 무대난 가마, 절기, 파종기
등과 함께 조합원들과 책임자들이 타고 단호 농민 자동차
까지 사온 한편, 기계 자동차, 기계우리도 야장간까지
보안직하게 짓어 조합원들의 모범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놀랐다. 당시 지방 우크레인 민족들은 목화농사는 잘
하였다. 농민들은 한인들에게서 기본적으로 배웠다. 특별적
협동조합에서, 적게나마 약간의 경주 배씨와 활씨들은
현종에서 강제 복방당하는 것으로 실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1934년 농사철은 좋은 배씨들을 많이 심게 되었다.
우크레인 공화국 정부는 강제이주 당하여온 한인들에게 한인에서
5년간 기한으로 일제 세금들에서 면제 혜택 새살림사들을 잘
꾸리도록 하였다. 한인들은 다만 국가에서 대북하여간 별안 반환
한 것을 보면 일제 세금은 물지 않았다. 이렇게 평화롭게 3년간
즉 1938-40까지는 풍부하게 잘 지내었으나 1941년 불어난
독-노 전쟁이 시작되자 의무적 양곡 부과량이 각 정리들에
활당되자 한인들의 생활도 좀 어렵게 되었으나, 그러나 다른
민족들에 비하여 더 풍요롭게 살았다. 우선 한인들은 정규

군에 공병하지 않고 다만 건설대원으로 1943년 불어 동원하기 시작하여 방어공사 수리, 철도 및 철교 수리와 새 철도부설 목적으로 북부 전선과 서부전선에 많이 동원되어 갔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날 때에는 로동 건설대원으로 전선 가까이 가서 일하던 부분적 청년들은 차후 정류장으로 변경되어 전쟁이 끝날 때 까지 북부한역에서 그중 부분적 청년들은 전사하였으며 부분적 청년들은 군공을 세워 훈장과 메달까지 수여 받고 집에 돌아온 사람들도 없다. 동원석 위원장은 소련 인민의 위대한 조국전쟁이 시작되자 경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부활고를 출여, 회원들이 소독을 레고 식히든 한편 국가에서 배정받은 의무적 곡물 수매량을 항상 초과 실행하는 한편, 회원들에게서 불어 자연적 의무금을 출여 거액을 소련 군대에 보내어 지속한 전쟁의 승리에 필요한 비행기, 탄약 기타 군기들을 희생하여 군대를 반대하여 투쟁하던 정선에 보내는 한편, 적후에서 투쟁하는 빨간지산들과 희생한 강도배들에게서 가진 당하였던 후방 영민들에게 수많은 의복과 다량의 양곡들을 보내어 전쟁의 승리의 날을 앞당기는 업적에 크게 이바지하고 국가 표창도 많이 받았다. 동 위원장은 조국전쟁 시기에 유즈백공화국 상임위원회 표창장으로 받았으며, 또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기여한 영웅적 조력공훈"이란 메달도 받았다.

동원석 위원장은 1945년 10월에 다뉴벤 주 군사동원부로부터 소련군대에 호소한다는 군사동원증을 받았다. 동위원장 은 협동조합의 크나큰 정의를 모을 어내로 부위원장에게 인계하고 급속한 걸음으로 원동 변경 연해주로 나가게 되었으며 11월에는 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 제 25 국단 지휘부에 호소하게 되었다. 25 국단 민선 사령부도 동원증을 평남도 동원군 사령부 총독권으로 1945년 11월 15일에 보내지 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군사령부의 가장 중대한 사명은 새로 조직된 인민위원회와 긴밀한 연계하에서 일년 안

자들을 적산이라 인정하여 이들을 등록인게 하여 연별총회
회에 앙르하며, 3월보 이상의 호지를 소유한 전체 연별들을 조차
등록하고 이들을 불우하여 연농원들에게 불여하는 사업들을 진행하
였던바 이를 가르쳐 반주호지개혁이라고 칭하였다. 이 호지개혁
을 진행하는 사업은 단번치 않았다. 농민들이 대대 논논으로 소유하고
이런 호지를 무상 몰수하고, 지주는 비주 식거나, 위반명의 백성들에게
불만을 어르켜 부분적으로 살인에까지 어르는 정초들이 벌어진
하였다. 바로 이때에 자기호지를 빼앗긴 많은 용근한 백성들은 조종
당이 강제로 어주식혀 보내는 구박한 산악지대에 가쪽을 어 끌고 가
보내는 남한에 넘어가 일사로 없다가 다시 돌아와 자기호지를 등록
하겠다고 생각하고 월남하였던 것이다. 호지를 불우당한 농민들은 조적
적 무장 행동으로 연별정권을 반역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소련정권
군대들이 어떻게 하였는지이다. 호지 개혁의 1946년 3월말까지 끝
난다음 5월분에는 산업국유화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적으나 크나 모든
기업소들은 전부다 몰수하여 국가의 소유로 하는 한편, 서, 학, 노, 나, 양, 화
취, 노, 적은 가정용 기계 취, 노 등은 전부 몰수하여 연별련회 협동조합으로
조직하였던 것이다. 동원익 선생은 농촌정리 유능한 지도자로서 농촌
군 소련사령부에서 모든 사업들을 모범적으로 조직 진행되도록 많은
사업들을 하시었다. 이 결과에 1948년 1월 중순에 동원익은
전근하여 소련연전 사령부 중앙 본부에 올라와 농촌정리 리오부
상급총액원으로 일하시었다.

동원익 선생은 1948년 12월에 북한에서 소련군을 철거하자
북한 공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소련 공산당 조직부의 결정에 따라
소련 공산당원으로 복귀 조선로동당에 전당하게 되었다.

동원익 선생은 전당 수속이 끝나자 1949년 1월 20일 부하
평양 시 당부위원장으로 선거 받아 일하시었다, 1951년 1월
부하 평남도당 부위원장으로 선거 받아 일하시었다. 이 시기는
전쟁시기 인고로 도적범위에서 당사업을 조직 지도 하기는 아주



사진은 1954년 8월에 농원식 선생이 군동당 중앙
위원회 농업부 부부장으로 개설시 농촌 현지지도차로 나갔을
시 찍은 것이다. 우측으로 2번째 - 농원식, 4번째 - 김일이다.

어려웠던바, 그것은 북한이 야기한 전쟁을 단기간에 승리로 종
말짓고 전 조선을 공산화하려던 계획이 좌한 결과 관련하여
북한의 산업 전체 파괴되었으며, 농촌 경제도 좌산 당하여
무엇이나 외국 수입품이 없는 군데로, 국가로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
됐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북한 정책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남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특히 자기호지를 볼수 당한 북동,
산업기업소, 삼각주인, 광산기업소 주민들 - 많은 사람들은 1950년 말기에
북한 연인군이 후퇴하고 유엔군과 국방군이 들어왔을시 빨간 당할 자기
소유물을 도둑 칠기 위하여 북한에 도둑 들어와 이전의 제민민간의 관계
를 해명하는 과정 여러가지 부정적 사건의 벌어졌다가 다시 연인군
이 도둑 나오는바람에 민민 경제는 해가 갈수록 더 좌한되고 민민들은 산
산이 사방으로 흐트러진 조건하에서 경제를 회복하려는 참어렵은 어려웠다
그러나 농촌경제 사업지도에 경험이 있는 농원식 선생은 평남중앙
사업소 정돈하고 파괴된 저수지, 산업복구를 위한 발전소들과
배전 망을 복구하면서 산업을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한편 농촌 경제

협동조합을 복수하여 다수인의 수호를 취지한 농업으로 정돈 회복하여
우선 연변의 먹거리 문제부터 해결하여 나갔다.

이렇게 북한 사회 경제에 있어서 가장 곤고한 시기에, 북한 연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은 모든 권력을 다하여 국가 사업보장에
나타나서 애바지하였다. 그 결과에 농민들은 상층의 길에 올라 다음 단
계를 명천하게 되었으며 1954년 6월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산업부 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새로운 직위에 전근되어 올라와서
총무직 선생은 평남도당 부위원장으로 전직시키며 개설시 체험한 모든
귀중한 사업경험들을 적용하여 권속 농촌정리 복구발전 사업에 크나란
기여를 하였다. 어디에 와서든 무엇이나 복구사업이 기본이었으며, 농산부
생활에 있어서의 속한 사실에 전전 수련에 도달하는 것이며, 농산부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키는 문제가 중대하였다. 이것을 위하여서 당중앙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여 북한에 자기 근략으로 공장을 짓는 문제라기보다
농산기계 공장들을 짓는 문제들로 해결하였는데, 또 그와 병행하여 많은
농산기술자들을 외국에 파견하여 새 경험들을 도입케 하는 한편 자기도
적접 소련 및 동유럽 나라들에 돌아다니며 많은 사업지로 경험들을
보받아 들었다. 1955년에 이르자 농촌정리 총무국은 전전 수련
에 도달하였는데, 농촌에 새로운 살림사리를 꾸리는 새로운 사업
들이 일어나는 한편 농촌정리 분화수련도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도시들에는 복구사업이 전적으로 전제되어 도시건설이 급속히 전개
되었는데, 많은 공장들이 복구되고 한편 새 각종화 공장, 근략으로
공장 다른 용기계 공장들과 병행하여 경공업 부문 공장들도 많이
짓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전직시키는데는 많은 주연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나
1956년에 이르자 많은 간부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벌써
1954년 봄에 비롯적으로 시작한 간부들의 사상검열 사업은 간부
들을 더욱더 학살하는 길에 완전히 들어섰다. 독재 정권은 자기 정권을
영구히 지키기 위하여 과거 자기 출신층에 위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권인민의 아버지" 력사를 아는 어둠과 어전에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서 일하던 간부들과 또 유익한 간부들은 모두 다 자기 세력 꾸림에, 절대 독재화에 민족사상의 불안전성이 초래될까 싶어 용감 청산하는 길로 나갔다. 먼저 남한 간부들, 다음 연안간부들, 또 다음엔 소련간부들 맞이 박애도 지방간부들까지 모두 청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사상검토 운동은 1956년에 이르러 최종점에 이르러 시작하였다. 여기서에는 벌써 소련간부들이 처단받기 시작하여 허가이가 1953년에 암살당한 여옥, 박창옥, 박의환, 박영빈, 장옥기, 최종영, 김원길, 김대건, 김희서, 권철우, 김철우, 김철우, 김철(작은김철) 선철학, 장익환, 한일옥, 송진과 정국옥 등 250여명이 철직 처단당하였다. 그중 50여명은 후속 처단당하였다. 바로 이때, 1958년에 이르러 일을 잘하여 배일각이 소평을 받은 동원식 선생은 철직되어 당 중앙으로 복귀 내리막 걸음을 걸어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당 사상검토 회의에서 특별히 문제를 취급하려 하였으나 본래 많지 않은 동원식 선생에게서 무엇을 허를 잡을지 모르니 그저 소련 가족주의, 사대주의 다음 소련 출신 상부간부들에게 결핵되어 맹종 맹종하였다는 것이다. 특별히 지적받은 것은 당 중앙 조직 부장으로 사업하던 박영빈의 골도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1960년 봄에 종말 잡혀진 사상검토회의 결정은 동원식 선생으로 하여금 하부노동 협동조합에 내리막 자기 선배를 추수하면 당은 다시 관여하여 처리하여 동원식 선생을 다시 노동간부로 등용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동원식 선생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서 하부에 내리막 간부들은 많았지만, 사상검토 력사 6년간, 다시 올라온 간부들 하나 없고, 내리막 가면 가족까지 함께 전멸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므로, 소련 정부가 청원을 내어 다시 소련 공민권을 회복하고 업주허가권을 걸기도 요청하였다.

송원식 선생은 1961년 6월에 소련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해 7월에 소련 모스크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도착하였으며, 자기가 폭과 아들이가 폭도 동반하여 데리고 왔다.

모스크바 당중앙 조직부에 초청된 송원식 선생은 북한에 귀국한 이후 15년간 자기가 한바 사업총화 보고를 제출하고 북한의 당시 변태된 김일성식 사회주의에 대하여 자기의견을 말하고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공화국 라슈켄스로 귀국할것을 요청했다. 라슈켄스 도착된 송원식은 우크라이나 공화국 공산당 조직부의 지시에 따라 칠랑사르 구역에 사택을 배정받고, 아들은 민간항공대학 법사로 취직하였으며 자신은 1952년에 자동차 전복사고로 인하여 입은 다발상으로 인하여 연금수속을 하였다. 송원식은 연금 생활을 하면서도 라슈켄스 주변 여러 협동조합들에서 자기 힘에 알맞은 활동을 계속하시다가 1980년로 북한은 완전한 녀금생으로 계시면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북한의 변태된 독재제도에 대하여 밤낮 열렬하시다가 1993년 10월에 세상을 떠났다.

송원식은 북한에서 일할시 자기책임으로 실행한 결과 국기훈장 3급, 2급, 자위독립훈장 2급, 조선해방비무장, 몽고인민공화국 훈장, 무다한 소련 메달들을 수여 받았다.

송원식의 아들 송 알렉산드르를 현재까지도 자기직무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으며, 프러인 문화 협회 사업인, 민주통일 구국전선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6. 5. 12. 장영봉.